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용식

##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성황'

### 유아 4천여명, 자연과 교감으로 정서함양



보성군은 체험·휴양·힐링 1번지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4천여명을 대상으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소리 체험장, 산채류 채취 체험장, 야생화 및 허브식물단지, 열매 체험 숲 등을 갖춘 '유아숲 체험원'을 개장해 숲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유아숲 지도사 및 산림교육전문가를 강사로 유아 감성 끌어내기, 숲 관찰 숲치유, 숲속 책읽기, 나무와 대화하기 등 유아기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태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숲을 찾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오감으로 교감하는 다양한 체험으로 호응도가 높으며, "내년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많은 아이들이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제암산자연휴양림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숲체험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 고흥군, '겨울철 과원 寒害 예방관리' 철저 당부

### 배수관리 개선·방상림이나 방풍망 설치 등 준비

고흥군은 겨울철 기온이 급감함에 따라 과수재배농가들에게 한해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해 중에 한풍해(寒風害)는 겨울철의 차고 건조한 바람으로 잎내의 수분이 탈수되어 건조해짐으로 인해 낙엽이 지는 것이고, 동해는 지속적인 추위로 인한 냉기류의 정체 시간이 과원 내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어 수목의 가지, 열 등의 기관이 얼게 되어 조직이 동

결고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해(寒害)피해는 겨울철 가뭄으로 뿌리가 약한 나무, 과원 위치가 분지형으로 냉기류가 정체되는 지역, 배수가 불량한 과원 등과 같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전년도 과다 착과한 나무나 수확시기가 늦어진 과원은 수세약화가 원인이 되어 피해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따라서 한해피해를 받기 쉬운 과원은 미리 배수관리를 개선하여

뿌리기능을 강화하고, 바람이 심한 지역은 방상림이나 방풍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새로 심은 1~2년생의 어린유목이나 내한성이 약한 과수는 뿌리근처의 지체 부위를 1m 정도 깊이 방한메트 등으로 싸여 한해예방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가뭄으로 장기간 건조가 계속될 경우는 따뜻한 날에 꼭 물주기를 실시하여 수세강화에 힘 써야 한다."고 과수 재배농가에 당부하였다.

김승호 전남농부채취본부장

## 장성군, '나눔 문화' 주역들 한자리에

### 2017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올 한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대축제가 장성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장성군은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5일 장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자원봉사자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여성자원봉사자회가 주관해 '함께해요! 자원봉사'를 모토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나눔 문화를 북돋워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나눔 문화와 자원봉사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지역 사회를 위해 뜻깊은 활동을 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축제인 만큼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해 장성군의 김재완 의장과 군의원, 도의원, 노인회와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발달장애회 등 주요 사회 기관 단체장이 대거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서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정감 넘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원봉사회원과 단체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수상 단체는 장성을 여성자원봉사회와 북이면 여성자원봉사회, 황룡면 여성자원봉사회가 선정됐다.

개인상은 남순희(장성읍), 이현자(장성읍), 강미양(진원면), 김복례(남면), 이순이(동화면), 삼서면(백연순), 한숙자(삼계면), 백소연(황룡면), 진순덕(서삼면), 허양자(북



이면), 권경희(북이면), 송순덕(북하면)씨가 각각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평소 여성자원봉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두석 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이 보여준 '사랑의 힘'으로 흔들림 없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열로우시티 장성을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 영광실내수영장 축소 운영

### 가뭄으로 물부족 심각 수준...주 6일제→주 5일제

영광군은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영광실내수영장을 오는 10일부터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영광군 식수원인 연암제의 저수율이 21.8%를 밑돌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연말까지 가뭄 해갈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제한급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에 없어 우선 1단계 제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향후 휴장 일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영광지역은 11월 말 현재 누적 강수량이 773.33mm(16년 1,109mm)로 평년 대비 70% 수준으로 내년 봄까지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일 약 5천 톤의 광역 상수도를 평립담에서 시들여 식수로 보급하고 있으나, 가뭄이

지속된다면 향후 상수도 공급 전망도 불확실하다.

김준성 군수는 "상수도 수원지의 저수율이 평균 약 30%로써 이대로라면 앞으로 2~3개월 밖에 버틸 수 없다며, 수영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영광실내수영장은 계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월평균 2,300톤(일평균 90톤)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내 상수도 사용 순위 7위에 이를 정도로 상수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 신안군, 섬 수석정원 기공식 개최

### 도서자생식물보전센터 및 농업종합연구관 공사도 함께 열려



신안군은 내년 하반기에 새천년대교 개통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자은도에서 신

안 섬 수석정원과 도서자생식물보전센터 및 농업종합연구관의 착공을 알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고길호 군수, 정광호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그리고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기공을 축하했다.

신안 섬 수석정원 조성사업은 자연면 백산리 10,575㎡ 균유지에 3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최대 수석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함께 기공식을 개최한 도서자생식물보전센터 및 농업종합연구관과 더불어 내년 새천년대교가 개통이 되기 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고길호 군수는 이번 3개의 사업과 함께 이곳 백산지구에는 이미 착공한 세계 고통전사관, 도서 해양자생식물테마공원 조성사업과 1만 2천여 평의 화훼단지, 3만 평의 한국 분재유리 공원이 함께 조성되어 우리군 중부권의 주요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박용식 기자

## 함평군,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

### 보건소 2층서 임시 운영

함평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관리 위해 이달부터 군보건소 2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에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

한 것이다.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 8명을 구성해 신축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일대일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등 기본업무 를 추진한다.

내년 8월까지 보건소 부지 내에 연면적 380㎡, 상담실, 검진실, 프로

그램실, 가족카페 등을 갖춰 3층 규모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상담, 조기검진, 자원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성희 보건소장은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 치료비 지원 등 통합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 광주형 일자리

원·하청관계 개혁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